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4월 9일(주일) 제1143호

2017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

내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오후 9시
하루 한 끼 이상 금식, 십자가 목걸이 걸기, 침묵기도

고난주간 심야예배가 시작된다. 내일(10일)부터 금요일(14일)까지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후 9시에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성서교독, 침묵기도, 말씀선포, 합심기도, 개인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4일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가상철언

낭독, 촛불 세리모니, 성찬식 등이 거행된다. 설교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와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이주연 목사는 10일(월)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11일(화) ‘참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신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이재훈 목사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월요일 주찬양,

화요일 주향한, 수요일 위식과이어, 목요일 대학청년부, 금요일 주사랑 찬양사역팀이 특순을 섬긴다.

고난주간 심야예배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금식헌금도 봉헌한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금식한 금액을 헌금하면 된다. 금식헌금은 난민구제사역에 사용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시간 전후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

이 묵상하기로 했다. 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 나무’가 설치된다. 성도 스스로 죄를 적은 종이를 회개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취지이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일주일이다.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드리 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월 비전헌금, NGO 더 멋진세상 후원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실시

오늘(9일) 봉헌하는 4월 비전헌금은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는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사용된다. 스리랑카 베다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이다. 스리랑카 출신 목회자 밀턴 목사와 온누리교회가 동역하고 있다. 현지에 교회 1개를 세웠고, 20여 명의 주민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베다족 출신 목회자 요한 목사도 배출했다. 영어교실, 농장, 양계장, 무료진료소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 습관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복음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온누리 NGO 더멋진세

상이 선봉에 섰다. 주민들의 의식 개선, 청소년 센터 건축, 교회 리모델링, 주거환경 개선, 보건, 교육, 농업개선 사업 등을 통해 마을 전체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오늘 서빙고 이천만관장과 양재 사랑을 앞에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안내데스크가 설치된다.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외에도 HIV 감염 아동 기도후원자 모집, 아프리카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생명수 보내기 캠페인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관련기사 2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참가자 모집

4월 26~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참가자 모집이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4월 18일까지 사전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로 접수하면 회비를 할인해 준다. 목회자, 사모, 신학생은 회비가 3만원이다.

2017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국제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인 에드 코리목사와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회복축제가 끝나자마자 후속 세미나가 시작된다. 4월 29일(토), 5월 1~2일

(월, 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회비는 5만원이다.

회복사역본부는 회복축제, 참가자, 강사, 회복사역팀, 스태프들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 문의: 02-3215-3532

확대 당회

일시: 4월 15일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그 땅에 새 생명이 움트는 그날까지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 소아마비에 걸린 베다족 아이.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이 아이를 도울 예정이다.



▲ 라투갈러 마을 주민들과 주택.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스리랑카 베다족을 대상으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스리랑카 베다족은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이다. 온누리교회가 베다족을 입양한지는 20년이 지났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더디지만 했다. 이번에는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나섰다. 청소년비전센터 건립,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 식수, 교육, 농업 사업 등으로 마을 전체 복음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9일) 봉헌하는 4월 비전헌금이 바로 이 사업에 사용된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고대선 코디네이터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 중 하나인 스리랑카 베다(Vedda)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1996년 10월 20일 ‘온누리선교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입양한 스리랑카 베다족 5개 군락지 중 하나인 ‘라투갈러(Rathugala)’에 현지인이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한 농장에는 돼지와 닭이 자라고 있다. 바나나와 코코넛도 재배하고 있다. 20년 전 건립된 교회에서는 현지인 사역자 밀턴 목사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베다족 출신 목회자 요한 목사도 배출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7시간 남게 달려가면 베다족의 거주지인 라투갈러에 도착한다. 2012년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서 예전에 비하면 접근이 용이해졌다. 마을 입구에 라투갈러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20년 전 지어진 교회라 그런지 엉성하기 짝이 없다. 깨진 슬레이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지붕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샌다. 그래도 낡고 허름한 라투갈러교회가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 주일 아침 8시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9시 30분 주일예배, 여자 성도들의 기도모임까지 바쁘게 이어지고 있다.

교회 옆에 자리한 작고 허름한 슬레이트 건물도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무료진료가 실시되고 있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실도 열린다. 캄캄한 공간에 의자를 책상 삼아 노트를 펴고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한없이 맑기만 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밀턴 목사가 사역하는 농장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가난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20년 넘게 사역한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이 과거의 습관에 매여있다. 산속에 흩어져 있는 라투갈러 마을에는 119가구가 살고 있다. 수렵과 채취생활이 익숙한데 사냥이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주요 소득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인 소득원 없이 야생 꿀이나 약초를 캐고, 옥수수, 콩, 감자 등 야채를 재배해서 근근이 살고 있다.

라투갈러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경작지를 개간할 수 없다. 그나마 경작이 가능한 공간에서 어렵게 키운 농작물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기 일쑤다. 게다가 관개시설이 없어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계획적인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상태다. 산비탈을 일궈서 재배하고 있는 옥수수는 가격이 낮다. 옥수수는 1년에 두 차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실제 소득은 별로 없다. 수입이 생겨도 저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돈을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머니는 금세 텅텅 빈다. 산에서 벌꿀

을 채취하거나 약초를 캐다 팔면 그나마 돈을 만질 수 있지만 하룻밤 술 한 잔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할 가장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앞담배 ‘블랏’을 씹기 바쁘다. 그들의 입 속은 언제나 붉게 물들어 있다. 블랏을 씹다 노동을 감당하기 힘들만큼 육체의 기능이 낮아진 가장들도 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말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집도 불품없다. 구멍 난 슬레이트조차 없어 지붕을 천막으로 대충 덮어놨다.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구멍이 뚫려 있다.

가장들이 마약과 술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다보니 아이들의 상태도 말이나 다름없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그 작은 마을에 26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법도 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베다족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체념하는 문화에 젖어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깨우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막힌 물꼬 터주기를

이곳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고 있는 밀턴 목사는 마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밀턴 목사는 베다족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역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베다족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 아픈 자, 갇힌 자를 위한 전인적 사역도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베다족 어린이들의 미래를 열어줄 교육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이가 밀턴 목사만은 아니다. 교회에 나오는 20여 명의 주민들과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갈급해하고 있다. 교회를 학교삼아 영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도 마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누군가 변화의 물꼬를 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밀턴 목사는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지금 이 시점에 베다족 주민들의 의식과 삶을 변화시킬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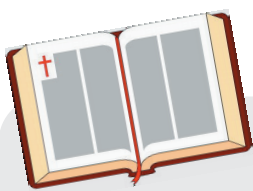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의식개선, 청소년사역, 지역개발사업 실시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은 베다족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개선사업과 청소년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라투갈러 마을 주민들이 한계를 뛰어 넘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을 진료소와 차세대대를 위한 ‘청소년비전센터’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은 지 오래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교회와 목회자 주거 공간도 새로 건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 식수, 교육, 농업 사업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갈 생각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여전히 베다족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알차게, 그리고 힘 없이 이어온 베다족을 향한 온누리교회의 사역도 봄을 맞이하는 대지의 기운처럼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향해 가지개를 켜고 있다.



고대선 코디네이터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명기 8장에서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전체 구조가 “기억하라”는 말씀과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을 부정형으로 강조하는 것임으로 그것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이나 나옵니다. 34번 이상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기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담아두는 기억력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출생 장소부터 거니시던 루트와 성경에 나온 모든 지명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어디 있고, 광야는 어디 있는지를 모두 기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인지 나사렛인지 헛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내용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이뤄진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기억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온전한 기억은 미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으로 내려지지만 가지는 위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억은 감옥이 되지만 건전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창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과거에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요한 일이 현재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전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란 확실히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소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까닭이 창조자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미래는 열립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가져라 혹은 미래를 품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헛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꿈꾸라는 권면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보다 큰 존재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기억에 대한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억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기억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된다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자기의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고백할 수 있고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자기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억이라는 무서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여 당신과 접할 수 있는 곳에

서 당신을 접하고 당신을 붙들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붙들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억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머리 속에 기억 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기억이 새로워지고, 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보다 큰 존재입니다. 살아온 기억만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과거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억의 노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보다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과거의 아팠던 상처, 감옥처럼 붙잡고 있는 기억을 초월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미래를 여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기억한다면 과거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만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만 취사선택해서 기억합니다. 선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서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기억창고가 새롭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2절)

광야는 크고 두려운 처벌의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학교란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평생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학교는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서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하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징벌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고통 받고, 거니시며, 공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처럼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3절).

또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겸손은 배고프면서 배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배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광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거두면 썩어 버렸습니다. 안식일 전에 거둔 것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배고픔을 극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말씀으로 본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십자가 대속까지!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가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은 오늘(종려주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으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목요일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갓 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금요일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면 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연대기성경과 우리말성경을 참고했고, 황재명 목사가 검수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종려주일,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명절(유월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기슭에 있

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 줄 것이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겹옷을 벗어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 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월요일,

권위의 날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

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엮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화요일,

논쟁의 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세명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소출의 열마를 받아 오라고 했지만,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 버렸다.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셔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버렸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아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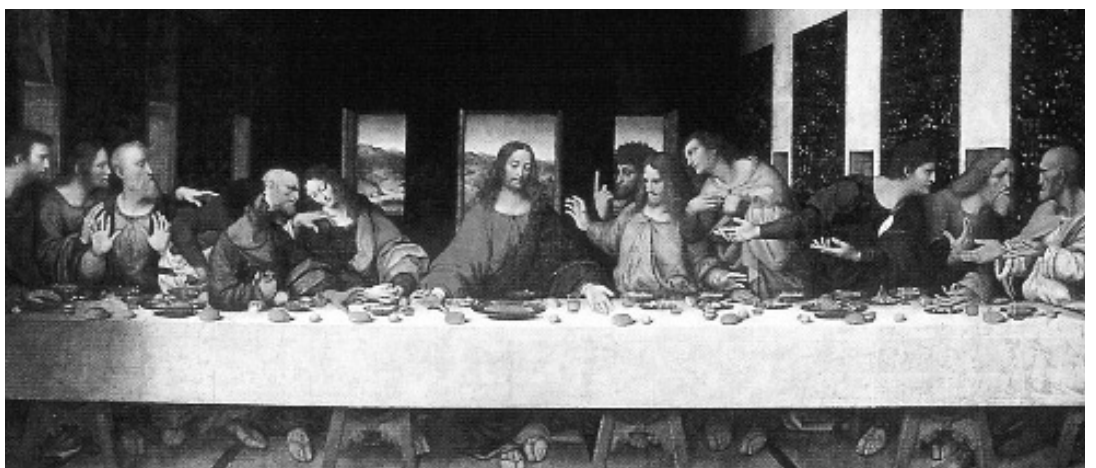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수요일,

침묵의 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을 나아왔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

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

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께서 겻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금요일,

십자가 죽음과 가상칠언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그들 모두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

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1인)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2인)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3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4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5인)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6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7인)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상칠언(架上七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한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런 처형

방법이다. 빨리 죽지 않고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오전 9시이고, 운명한 것이 오후 3시이다. 십자가 상에서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용

서하셨고, 구원(낙원)을 약속하셨으며, 인류(부모공경)를 성취하셨고, 고뇌와 육신적 고통을 드러내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으며, 최후의 신앙고백으로 ‘아버지’께 의탁하셨다.

내가 만난 하나님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뱃속에 사람 머리만한 종양이 생겼다. 이대로 남편과 자식을 남겨놓고 죽을 수는 없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갑작스런 출혈로 죽음 문턱까지 갔었다. 사흘 동안이나 의식이 없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깨워주셨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번쩍 떠졌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김순규 자매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만난 김순규 자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2013년이다. 내 나이 33살이었다. 1월부터 7월까지 설사를 했다. 집 근처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보았다. 스트레스성 위염,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또 설사하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배가 아팠다. 이리다 죽는 것 아닌가 싶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위내시경을 받았다. 위내시경 검사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배와 등 사이에 무엇인가 가득 차있는 것이 보였다. 복부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배 안을 감싸는 막 뒤쪽에 20cm가 넘는 큰 종양이 발견됐다. 후복막은 무엇이고, 20cm가 넘는 종양의 정체가 무엇일까. 혹시 암은 아닐까. 눈앞이 캄캄했다. 의사는 소견서를 적어주면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하나님 제발 암이 아니기를,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육종암일 것이라고 했다. 육종암은 희귀암이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 의사는 나를 얼마 있지 않아 죽을 사람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나를 공포로 몰고 갔다. 차안에서 남편과 대성통곡을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두 아이와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다. 꿈이기를 바라면서 불을 쪼집했지만 현실이었다. 살고 싶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집 앞의 교회에 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저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나요. 제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를 지켜주세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두 자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물 콧물 흘러가며 묻고 또 물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도 이겨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순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의심이 사라졌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서울삼성병원의 김 교수님이 육종암과 후복막종양에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은 내가 병마와 싸우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어렵다던 예약이 쉽게 되었다. 진료를 본다고 하더



퇴원 후 가족들과의 첫 나들이.

라도 수술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든 수술을 빨리 받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았다. 그래도 실현 불가능해보였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화요일 진료시간에 김 교수님을 만나고 그 주 목요일에 수술을 하자고 하셨다. 수술날짜를 빨리 잡고 싶어 온갖 노력을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수술 전날 병원에 있는 기독교실을 찾아갔다. 인상이 너무 좋은 김정숙 목사님이 나를 맞아주셨다. 내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해주셨다.

“순규 자매가 33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이가 33살이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순규 자매도 분명 병마와 싸워 이겨서 새 생명을 얻을 거예요.”

수술날짜, 시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성함을 말했더니 그분이 믿음에 좋은 분이 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또 느낄 수 있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외로 평안했다. 이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눈이 살짝 떠졌는데 고향을 지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조금 전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다른 침대로 던져졌다. 다시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눈앞이 캄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골고다 언덕이 보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땅 밑으로 내려오더니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간호사가 천사처럼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의식 없이 사흘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했다. 수술이 잘 됐다고만 말 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진료를 위해 찾아온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순규씨 죽다 살아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12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출혈이 발생해 4시간 동안 재수술을 했다고 한다. 피를 16팩이나 수혈했다고 했다. 사람들이 고향을 지르며 나를 다른 침대로 던진 그 때가 바로 응급상황이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죽어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만 믿고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드린 주일 예배에서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다.

기다리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 암이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검사해도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이한 종양이라며 연구 자료로 쓰인다고 했다. 주 안에서 맛보는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담즙액이 나오는 총담관이 막혀서 담즙배액주머니를 차게 됐다. 호스와 담즙배액주머니를 차면서도 감사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음에 감사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담즙배액주머니는 내 생명줄이다. 호스가 꼬이거나 막히면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다시 호스를 바꿔야 한다. 옷 입을 때도 불편하고, 뛰지도 못하고, 목욕탕에도 못 간다. 밖에서는 화장실을 찾아다니면서 담즙을 비워야 한다.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3년이 넘게 살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나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왜 담즙배액주머니를 달게 하셨냐며 불평할 때도 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병원에 갈 때, CT를 찍을 때,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된다. 나약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한없이 약해진다.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병원에서는 호스를 오래 차고 있었으니 수술을 하자고 한다. 그런데 장을 잘라서 십이지장으로 연결하는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다.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 수술하기가 겁이 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담즙배액주머니를 떼고 건강해지면 가장 먼저 목욕탕에 갈 것이다. 아이들과 목욕탕에 가서 물장구를 치는 상상을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또 한 번 부어주시길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가족들과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

/ 김순규 자매

호스피스 봉사자 모집

황인경 팀장 010-8367-8835
이영미 총무 010-8944-0634

특집_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을 찾아서

1. 프랑스 개혁신앙가 피터 왈도
2. 영국의 개혁신앙가 위클리프
3. 스위스의 개혁신앙가 존 칼빈
4. 날마다 개혁되는 신앙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1517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기치로 내걸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위선에 맞섰다. 루터의 개혁이 성공해 개신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가톨릭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쇄신을 요구한 종교개혁가는 루터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가들이 있다. 이기훈 목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종교개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기초”

프랑스 개혁신앙가 ‘피터 왈도’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일대일제자양육,
성동광진공동체 담당)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신앙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황제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300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점점 성장해갔다.

주후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된 이후 약 200년 동안 교회는 국가 권력의 보호 아래 성장했고 성직자들은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사역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어 갔지만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단은 지금까지도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다. 주후 500년부터 교회는 약 1천년 동안 빛과 어둠을 오가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마틴 루터 시대에 이르러 타락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루터가 교회개혁안 95개 조항을 독일 비텐베르크의 성안교회 정문에 내걸었던 1517년을 기점으로 금년이 꼭 500년째다.

종교개혁 운동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개혁운동’이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경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렸고 신앙이 형식화되었다. 교황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신앙을 율법화 시켰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제도,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직분은 계급화 되었고, 성직자들은 직분을 권력 삼아 잘못 사용하였다.

유럽에는 수백 년 된 수도원들이 많다. 지금도 수도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더 많다. 유럽에 수도원이 많이 생긴 것은 당시 타락한 교회의 일면이기도 하다. 교회의 부정부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참된 신앙을 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수도원은 세상을 떠나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놓고 사는 곳이라는 단점도 있었지만 수도원 때문에 순수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난 것



루터 광장에 있는 피터 왈도 동상. 성경과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은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다.

이 같은 신앙개혁운동은 루터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루터는 성공한 개혁운동가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개혁운동을 성공하지 못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개혁자들이 훨씬 많다.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성공하지 못한 개혁운동이 루터의 개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밑거름이다. 그 운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인물 중심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한다.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는 신앙인

1521년 4월 16일,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은 황제 카를 5세가 독일 보름스대성당으로 루터를 소환해 심문하였다. 그리고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 후 성당 옆에는 그를 기념하여 루터 광장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루터의 동상을 중심으로 신앙개혁에 앞장섰다가 핍박을 받았던 개혁자들의 동상이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탈리아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도미니칸 수도회 출신 사보나 롤라와 루터보다 100년 전에 프라하에서 개혁운동을 하다 순교당한 후스, 옥스퍼드 출신 개혁가 존 위클리프와 프랑스의 개혁가 피터 왈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피터 왈도의 동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의 개혁운동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혁자 피터 왈도(Peter Waldo)를 소개하고자 한다.

프랑스 리옹의 부자 사업가였던 그는 1173년 어느 날 파티 석상에서 동료 한 사람이 급사하는 장면을 보고 삶에 대한 회의와 고민을 하게 된다. 그의 고민은 마틴 루터가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영적인 것이었다. 1176년, 영적으로 방황하던 어느 날 찾아갔던 신학자가 전해준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마 19:21)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위한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몽땅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물을 위해 살다가 재물을 나눔으로써 재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다. 그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시스처럼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설교사역을 하였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사람들은 그 무리를 ‘왈도파’라고 불렀다. 교황청은 그가 요구하는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개혁의 내용들이 로마 교회에게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에 무지한 로마 교회는 부패했다고 선언하고 잘못된 교리 내용들을 하나씩 지적

하였다. 왈도파의 14개 조항으로 된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성경 66권만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고, 연옥교리는 잘못되었으며, 기도가 교회 안에서만 해야 효과가 있다는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회중들이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모국어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수도사 두 사람을 고용해 남프랑스 방언인 ‘푸라벤살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 왈도파 사람들은 교황청 금지사항 중 하나였던 신약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였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족복음’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힘썼다.

당시 리옹의 대주교는 왈도를 교황청에 고발했다. 왈도는 로마에서 열린 라테란 공의회(1179년)에 정식으로 교회개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1184년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출교되고 말았다. 그 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왈도파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핍박을 가했다. 교황들은 왈도파 신앙인들을 처형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487년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8,000명의 군사를 보내 개혁신앙을 따르던 백만 명 이상의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왈도의 개혁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후 칼빈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프랑스 장로교회의 교리를 세우는데 근간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체코 교회의 개혁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는 말씀과 순종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따라서 성경에 무지하면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되어 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묵상이 신앙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곧 날마다 신앙이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과연 성경에 합당하게 세워져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의 리더들은 성경에 합당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갱신되어도 부족할 뿐이다. 왈도는 말씀 중심의 신앙은 물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개혁자로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특집 -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행복한 싱글 라이프 만들기

“우리 공동체에 와서 결혼하세요.”

마치 결혼할 사람을 고르기 위해 공동체에 나오라는 말 같아 속상했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은 성인공동체에도, 청년부에도 섞이기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한 성도들과 순모임을 하자니 공감대가 부족하고, 청년들과 어울리자니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1인 가구가 대세다. 교회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싱글들을 더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 그들이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방법이 <빛과 소금> 4월호에 실렸다. 그 기사를 요약 정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혼자’라는 말이다. 대중들의 이러한 동향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방송이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혼자’와 관련된 예능과 드라마를 선보이고 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혼술남녀’ 등 혼자서 삶을 즐기는 일명 ‘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늘고 있는 추세다.

20~30대 젊은이들 대상으로 혼밥(혼자 먹는 밥)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험해 봤다는 응답자가 96.4%에 달했고, 그 중에서 66.8%는 일주일에 10회 이상 혼자 밥을 먹는다고 했다. 혼밥 뿐만 아니라 혼행(혼자 떠나는 여행), 혼영(혼자 보는 영화), 혼곡(혼자 부르는 노래) 등 ‘혼족문화’를 대변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혼족이 왜 증가하고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은 1인 가구의 증가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조사되었다(27.2%).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3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혼족이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복잡한 관계 설정을 포기하고 혼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상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현장을 두고 ‘관태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관계’와 ‘관태기’를 합한 이 단어는 인간관계에 염증과 회의를 느낀다는 뜻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자는 정서가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SNS가 크게 확산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주변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혼족문화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이대로 방치된다면 사회적 문제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먼저 혼족이 증대되면서 외로움과 고독, 우울증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연구회의 조사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해보니 80% 이상이 우울

증이었다고 한다. 결국 우울증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혼족문화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족문화가 증대되면서 외로움과 고독, 우울증이 늘어난다면 사회적 문제인 자살률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웃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 전부터 이러한 혼족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생겨나고, 자동주문 기계가 설치된 라면집이 있을 정도로 혼족문화가 발전되었다. 문제는 혼족문화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백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혼족문화의 발달과 맞물려 은둔형 외톨이가 30만 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진학과 취업 실패, 인간관계의 좌절로 인한 트라우마, 어린 시절 내재된 상처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용불안이 주는 사회 분위기도 큰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회공동체, 개인적 대안 필요

교회 안에도 혼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에도 이런 청년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결혼 못한 청년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발붙일 수가 없게 된다. 이제 교회는 그들을 향한 사역과 돌봄이 필요하다.

먼저 교회공동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이다. 그중에서도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의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교회 교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위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한다.

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생각,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안디옥교회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죽인 헤롯의 첫 동생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울까지도 받아들이는 교회였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결국 그 다양성이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받아들여질 때 폭발력 있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는 것이 옳고 안 하는 것은 틀렸다는 식의 흑백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큰일 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에 상처받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 교회는 먼저 그들의 싱글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은 결혼을 통한 혈연관계의 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혼족’이라 불리는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가정을 닮은 소그룹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직장에서나 집에서 항상 혼자 생활하는 그들을 챙겨주고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소그룹이 있어야 한다. 어떤 교회는 그들을 집사님이라 부르고, 어떤 교회는 그들을 부부 청년부에, 어떤 교회는 그들을 대학 청년부에 소속시키기도 한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소속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사역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가정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 함께한다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어야 한다.

개인적 대안도 필요하다. 첫째, 성숙한 혼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미숙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일에 미숙하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 지 모른다. 유혹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다. 다윗이 혼자서 성을 거느리고 있을 때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요셉도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일에 미숙하면 결국 유혹을 받게 되고, 죄의 문제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중독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중독은 외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혼자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풍성한 싱글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순히 혼자의 시간을 취미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시간을 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누가 복음에는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평생 혼자 살아왔던 한 여자 선지자 안나가 등장한다. 안나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 혼족들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 안나의 혼자 생활이 빛났던 이유는 취미생활을 위해 시간을 쓰기보다는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이 시대 크리스천 혼족들에게 도전한다. 평생 바질만 한 비전을 위해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혼자일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로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였다. 혼자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다.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영성이 건강한 사람만이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항상 기도하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라.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위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한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시사회

4월 17일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 시사회 후 26일 전국 개봉



지난 3일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광주 시사회에 참석한 사람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시사회가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난 4일 삼성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시사회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타 교회와 교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왔다. 결인과 고아, 여성들을 보살피고, 자신의 주검마저 기증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청빈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가 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CGNTV 이용경 대표는 “성공적인 흥행이 귀한 영화를 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영화의 감동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미디어를 통한 복음전파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 영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영화를 관람한 베이직교회 박인규 성도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감동”이라며 “주변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적극 추천 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적의교회 임명옥 전도사

는 “복음전파를 위하여 더 헌신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시사회는 17일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에서 이어진다. 전국 극장 개봉은 4월 26일이다. 4월 30일까지 상영하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관객 수에 따라 5월 초 상영관과 상영회차가 편성된다. 100명 이상일 경우 대관관람이 가능하다. 대관관람은 개봉일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문의: 010-8895-4696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통일 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

탈북민 사역 목회자 총 출동

통일위원회가 4월 22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하는 통일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에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총 출동한다.

이번 통일 세미나 ‘탈북민 복음화와 사역자화’에서는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이 탈북민 복음화와 그 문제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통일세미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영식 목사가

‘탈북민 접근과 유대관계’, 이빌립 목사가 ‘해의 탈북자 접근성’, 허원희 목사가 ‘구제 및 사역을 통한 접근’ 2부에서는 최광 목사가 ‘성경 통독을 통한 복음화’, 김상수 목사가 ‘탈북자 양육 방법’, 하광민 목사가 ‘탈북민의 제자화 사역’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문규 목사, 이수봉 목사, 조요셉 목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10-4447-355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5월 둘째 주 ‘순맛축전도집회’

전도대상자 선정하고, 중보기도 시작해야

순맛축전도집회가 5월 둘째 주에 시작된다. 성인공동체 순별로 실시하는 순맛축전도집회는 순원들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순모임에 초청해 교제하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순은 순맛축전도집회 6주 전(4월 첫째 주)부터 전도대상자들을 선정하고,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전도대상자들이 순맛축전도집회에 참석하도록 순원들과 합심해서

중보기도도 해야 한다.

순맛축전도집회 프로그램은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관람, 식사 나눔, 축복찬양, 감사편지 낭송, 간증 나눔,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사후 관리 방법은 감사카드 보내기, 안부 전화 등이 좋다. 순의 사정과 전도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카페, 극장 등 야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좋다.

문의: 02-3215-3214

용산복지관 개관 15주년 감사예배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되었으면”

지난 5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용산복지관)이 개관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박종길 목사, 조항진 장로, 정호욱 상임이사, 성창현 용산구청장, 이성희 관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는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용산복지관 어르신들의 마음과 영혼이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성희 관장은 “나눔과 섬김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범 직원, 모범 어르신, 모범 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모범 어르신으로 선정돼 용산구청장 표창을 받은 황정자 어르신(73세)은 “용산복지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어졌다. 오후에 열린 콘서트에서는 수화공연, 플룻 앙상블, 난타공연, 국악공연이 진행됐다. 코믹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등의 문화행사와 데이케어센터 증축기념커팅식도 이어졌다.

CGNTV 어린이 찬양제 개최

4월 16일 오후 8시 30분 방송

CGNTV가 어린이 찬양제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를 개최했다. 중창, 합창, 위십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찬양제에서는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3월 25일 진행된 결선에서는 9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중창, 합창 부문에는 ‘올리브 찬양팀’, ‘홀리스 콰이어’, ‘글로리아 합창단’, ‘하람빛 중창단’이, ‘위십’ 부문에는 ‘하이’, ‘카르포스’, ‘킹스키즈’, ‘

예진’, ‘ACT’S 29’ 팀이 참가했다.

심사위원 성악가 배재철은 “어린이들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했고, CGNTV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는 “모두가 1등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이었다”고 심사평했다.

CGNTV 어린이 찬양제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는 오는 4월 16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병원심방전도사역 세미나 참가자 모집

양재 병원심방전도사역팀에서 ‘병원심방전도사역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세미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를 주제로 4월 19일 오후 1시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진행된다.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은혜로다’, ‘다윗처럼’ 작곡가 장종택 목사가 강의한다. 병원심방전도사역에 동참할 성도도 모집한다.

문의: 010-4946-3832

온누리도서관 봉사자 모집

온누리도서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5시 중에 봉사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과 반납, 서가정리, 자료 분류 및 입력, 장서개발, 홍보, 중보기도 등을 하게 된다.

문의: 형세우 팀장 010-7404-7001

온누리 창조과학스쿨 참가자 모집

‘온누리 창조과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CGNTV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5월 13일에는 1박 2일로 온누리 창조과학 탐사를 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과 전화로 하면 된다. 온누리 창조과학스쿨 회비는 3만원, 온누리 창조과학 탐사 회비는 8만원이다. 창조과학스쿨에서

는 창조신앙으로의 초대, 생명의 기원, 인체의 신비, 지층과 화석, 노아 홍수 콘서트, 정확무오한 성경, 으뜸 창조물 공룡, 지구와 우주, 영혼 건강의 첫 단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온누리 창조과학탐사 지역은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여수)과 고성공룡 박물관 등이다.

문의: 010-3869-7785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4월 16일(주일) 오후 3:30 /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자: 3월 5일~4월 1일 까지 등록성도

강남B 손혜원 안진오 윤치선 이영은 이영년 정수민	이옥진 천형성 한상만 황정순 이명은 강남D 김영희 김하나	서초B 고수진 이순남 이지순	서초D 박경일 이슬기 임동진	이규미 정은실 정재환 정현경	신용규 이기쁨 이수현 한지원	김산희 박은신 박지현 송대현 오정미 원종덕 이정수 장성창 정현도 조영실 최정윤	안양평촌 김범희 김영자 정상희
강남C 김은숙 마선일 윤현숙	서초A 김수진 오수면	성유진 이선혜 이해춘 임종성	양재 강경애 고인아 김윤옥 모두열 박매자 박상만	푸른누리 민철홍 최혜정 황석원	분당A 김지은 윤장순 분당B 고수정 김명숙		

■ 남양주 식당사역팀 간증



/ 김현택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식구들

남양주 온누리교회 식당사역팀은 주일 1부 예배가 끝나면 주방에 모인다. 그리고 기도로 봉사를 시작한다. 앞치마를 두르면 섬기는 마음이 샘솟는다.

찬양을 흥얼거리며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운다. 한 주간의 삶과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고충을 나누기도 한다. 행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가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다. 사역팀원의 생일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33개의 초를 쬔 케이크를 들고 와 축하해준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굿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식당사역팀원들을 보면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나는 6년 동안 식당사역팀을 섬겼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배식할 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성도님, 혹여 얼굴이 안 보이면 걱정돼서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성도님, 맛있다는 한 마디에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늘 행복하다.

식당사역팀은 사랑과 믿음으로 밥을 짓는다. 조금 더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 토요일부터 국물을 내시는 집사님과 팔목이 아픈데도 미소 지으며 수백 그릇의 밥을 푸는 집사님이

계신다.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집사님과 식당에서 가장 고되고 지저분한 일만 찾아 섬기는 집사님도 있다.

주방에는 힘든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다.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쌀을 씻을 때도 있었다. 칼에 베어 밴드를 붙이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 더운 여름이면 가마솥 열기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식당봉사팀은 늘 웃는다.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좋다. 식사를 다 하신 성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정말 잘 먹었다고 하면 피곤하던 몸이 솟털처럼 가벼워진다. 식당사역팀원들의 얼굴에 함박꽃이 활짝 핀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우리가 주방봉사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식구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식당사역팀은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식구들이다. 이 자리를 빌려 식당사역팀 식구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 대전 여성전도집회 '만남'을 준비하면서



/ 이미숙 사역자(대전 온누리교회)

꼭 만나야 할 그 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바로 '물 떠은 하인들'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바로 이 하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나는 것이다.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들의 첫 만남의 중매자가 되기를 자청했다.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의논하던 어느 날, 가수 노사연 집사가 이번 집회에 가까이 와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또 멋진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카스 형제도 흔쾌히 와주겠다고 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한결 힘이 났다.

우리는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신청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대상자를 선정했고, 초청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됐다. 권사회가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매일 오전 9시 같은 제목으로 피기도를 하고 있다. 신청자모임의 중보기도도 깊어졌다. 중보기도를 시작했더니 초청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

났고 만나게 된다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태안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가 대전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가 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에서 사는 시어머니를 초청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2시간 넘는 거리인 태안에서 대전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오겠다고 수고를 자청했다.

한 권사님은 직장생활을 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동창을 우연히 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만나게 되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고 살자'는 친구들의 말에 "4월 19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어때?"라고 제안했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는 듯이. 우리는 이런 저런 소식에 벌써 활짝 열린 천국문으로 초청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 기뻐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만남도 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을까' 싶은 소중한 만남도 있다. 이번 전도집회 '만남'에 초청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바로 그 분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래본다.

■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간증



/ 박신애 성도(분당B공동체)

감사한 마음과 빛진 마음으로

"별써 가시나요? 꼭 또 오셔야 해요.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나의 가슴에 가장 깊게 남은 인사말이다. 이번 아웃리치는 CGNTV와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를 위한 예배 컨퍼런스와 람퐁의 '위즈마까시(사랑의 집)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상진 목사님과 위십하우스, 푸른누리공동체 소속 지체 14명이 참석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우기가 절정이라 비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가 패어 위험에 노출되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우려되던 인솔자의 안내가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예배컨퍼런스에서는 이상진 목사의 주제 강연과 세션별 특강, 저녁집회가 진행됐다. 인도, 보컬, 건반, 드럼, 일렉, 베이스, 음향, 교회 미디어 등 각 분야 강사들이 현지 예배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수업을 진행했다. 각기 다른 세대와

나라가 연합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했다. 그 날의 집회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카르타와 람퐁은 사뭇 달랐다. 자카르타는 현대적 문명이 발달했지만 람퐁은 아니었다. 전원적인 풍경과 사랑스런 구름이 인상적이었다. 그곳에는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픔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위즈마까시공동체가 있다.

우리는 위즈마까시공동체 아이들 42명과 M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만났다. 예배드리면서 슬픔을 토해내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과 땀으로 옷이 다 젖도록 울었다. 그 다음 날 위즈마까시공동체 아이들은 우리와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것처럼 물놀이와 식사를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 아이들과 어울리며 섬겨주신 지체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선교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그 아이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 줄 수는 없지만 감사한 마음과 빛진 마음으로 계속 중보기도 할 것이다.

■ 금요회복예배 소그룹 '뒤늦게 찾아온 행복' 참가자 간증



/ 박경민 성도(S브릿지공동체)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삶

사람들에게 실망했었다. 캄캄한 상황이 3년이나 지속됐다. 사업실패로 나날이 빚만 쌓여갔다. 이러한 상황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했다.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꼬여만 갔다. 갈수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느낌이였다. 어떤 일든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일용직에 3주간 나갔다. 몸 쓰는 일이 처음이다 보니 성한 데가 없었다. 사업도 갈수록 안 좋아졌다.

그때 함께 사역하던 집사님이 나에게 금요회복예배 소그룹 '뒤늦게 찾아온 행복'에 참가해 볼 것을 권유하셨다. 복잡한 심정 때문인지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생겼다. 기도 자체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기도했었다면 지금은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싶다고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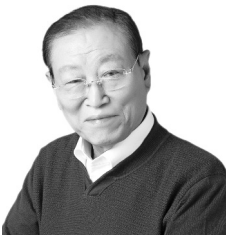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잘못된 모습을 인지하면 매순간 회개기도를 한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 길을 걷다, 밥을 먹다,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로님이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 그 기도문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고 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온 일을 딱 맞게 주셨다.

요즘은 3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동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큰 선물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의탁할 수 있는 매순간이 감사하다. 다락방에 참여하는 재미에도 빠져있다. 열정 넘치는 순장님 덕분에 매주가 기대된다.

장로칼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용만 장로
(OCC공동체)

소년 시절에는 마을에서 공부 잘하고 착한 소년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전교 최우등생도 되었다. 그런데 6.25가 발생하고 꿈쩍없이 인민군 장교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버님 지혜로 면했다. 국군의 공세로 인민군들이 철수하면서 학생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게 되었을 때에 나도 부상자를 들고 꿈쩍없이 평양까지 가게 됐다. 밤새 산을 넘으며 가다가 같이 부상자를 후송하던 연장자의 지혜로 경찰서에 가서 밥을 먹고 오겠다고 말하고 도망을 쳤다. 마을에 오니 복직하는 국군들 수십명이 집에서 머물렀다. 어머니는 국군들에게 밥해 먹이느라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모른다. 그 후 치안대가 생기고 학도대가 생겼는데 나도 학도대원으로 공비 토벌에 나가는 날 어머니가 “배고프겠구나”라시면서 떡을 구워 주셨는데 그 찰떡 세 개가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음식이었다. 토벌을 갔다 들어오니 시내는 이미 인민군으로 가득했다. 그 길로 남쪽으로 향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뜨개질로 떠주신 양털스웨터가 부대자루 같이 뻗뻗했다. 경산에서 신체검사 때에는 연령 미달이라 검사 받지 않고 육군훈련소로 들어갔다. 훈련소에서는 밥도 주고 담요도 주고 정말 좋았다. 1951년 5월 11일, M1소총 실탄 300발을 몸에 감고 춘천에 있는 가리산으로 갔다. 산 능선에서 적의 부대를 만나 두 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다. 총 두발을 맞았다. 왼쪽 어깨와 척추에 총을 맞고 절벽으로 굴러가다 나무에 걸려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금만 더 아래에 총알을 맞았으면 그대로 즉사했을 거라고 했다. 내가 맞은 두

발 모두 급소를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전우의 기도 덕분이었다. 몰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저녁 성경 읽고 찬송 하며 기도하던 전우가 나에게 대한 기도도 열심히 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가서 고학으로 졸업했다. 가정교사도 했고, 남들 대신 숙직도 하고, 트럭을 타고 짐도 날랐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재무부에서 일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60~70%를 더 일했다. 7시 이후 출근하거나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높은 분의 친인척이 나를 찾아왔는데 일이 바빠 만나지 않았더니 과점죄로 면직을 당했다. 취직이 금지된 2년간 체육관에 나가 분을 풀었다. 별의 별 생각이 들었으나 궁리를 하다 누구를 탓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 들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고쳐 주셨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자산이고 성장의 원동력이다. 하용조 목사님은 고난 이상의 보약이 없다고 하셨다. 밑에서부터 새 출발을 하지는 마음으로 종업원 100명 정도 되는 투자금융회사를 맡아 1등으로 만들고, 신한은행, 외환은행, 은행금융감독원을 거쳐 재무장관이 되었다. 재무부에서 면직 당하고 다시 돌아가기까지 딱 11년 걸렸다. 그러나 면직을 당한 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채시장의 움직임, 시중은행, 국책은행, 감독원의 미흡한 점을 경험한 것이 장관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마다 지켜주셨다. 지나고 보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권사칼럼

웹진 ‘일대일 뉴스’ 발간

서승옥 권사
(서빙고 일대일사역팀)

서빙고 일대일사역팀에서 웹진 ‘일대일 뉴스’를 발간했다.

이 웹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일대일 사역자들을 위한 뉴스다. 일대일 제

자양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대일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그런데 일대일 사역자들이 일대일 제자양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했다. 그것이 웹진 ‘일대일 뉴스’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다.

“일대일 양육자와 빨리 연결해 주세요”, “동반자(혹은 양육자)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나요?” 등 수많은 질문들이 일대일사역팀에 들어온다. 양육자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일대일 제자양육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새로 시작하는 어린이 일대일 양육자반의 신청은 얼마나 됐는지, 대외사역은 몇 군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만큼 일대일사역팀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대일사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일대일 사역자들은 사무적인 업무도 많다. 사역을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라고 권면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 공동체 일대일 사역자들은 컴퓨터도 잘 다룰 수 있

어야 하고, 양육자와 동반자가 매칭이 잘 되도록 공동체 식구들의 면면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을 긴밀히 살피고 연결시켜야 할 사역자들이 2년마다 바뀐다.

새가족 일대일 제자양육도 마찬가지다. 새가족반 5주차에 일대일 제자양육이 연결된다. 전산으로도 연결시켜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전화나 문자로도 알려야 한다.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도 사역자들은 일대일 제자양육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외사역팀은 또 어떤가. 지역 교회에서 고심하며 조심스레 요청한 것인 만큼 부담과 의무가 있다. 그 교회에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대일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소식통이 꼭 필요했다. 서빙고 일대일사역팀의 휴대폰 단체대화방에는 120여 명의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들에게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일대일 제자양육과 관련된 소식들을 공유하고 싶었다. 나는 60이 넘는 나이에 출판디자인에 필요한 프로그램(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을 배웠다. 이것이 웹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많은 분들이 염려와 생각을 보내주셔서 지난달 ‘일대일 뉴스’ 웹진 1호를 발간했다. 웹진은 일 년에 네 번 발행하고, 발송은 이메일과 휴대폰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 웹진을 모아 연말에 책으로도 만들 예정이다. 웹진 ‘일대일 뉴스’를 보면서 다음에 오는 일대일 사역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더 힘찬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이승용 대표 MC
(SNS공동체)

온누리교회와 SNS 청년부는 나의 첫사랑이다. 첫 번째 교회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나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셨다. 그 중심에 온누리교회와 SNS공동체가 있다.

청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에 온누리교회 SNS공동체는 50여 명으로 시작해 불과 3년 만에 매주 청년 900명이 넘게 모이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

가 정말 특별한 은혜다. 더 이상 의자 놓을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20여 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다. 공동체 모든 리더십들과 중보기도팀이 오랜 시간 예배처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섬김의 손길 또한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순장들이 계속 세워져야 하고, 여러 사역팀을 섬기는 손길들도 더 필요하다. 그런데 예배당을 꽉 채운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음에도 섬김의 자리가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다.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라고 하거나 취업문제가 해결된 후에 섬기겠다고 한다. 언젠가는 섬기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준비된 때가 있을까.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때 도 여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수많은 기도제목들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올려드릴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인생의 축복과 형통에 관한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은 외면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만 계수하고, 세상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극진했고, 열정적이었으며,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과분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감히 헌신이라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한 사랑을 올려드린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오늘 나의 최고의 열정과 사랑과 갈망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한다.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 인생의 향유욕망을 깨트려 주님께 올려드리자. 향유욕망을 깨뜨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지막 때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기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변함없이 드러야 한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의 크기와 농도가 전해지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책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양식을 거두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땅에 꽃을 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심술궂게 묻습니다.

“꽃이 밥 먹여 주냐? 시가 밥 먹여 주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밥 먹고 나서 뭐할래?”

그 사람들에게 더 시급한 것은 육체의 배고픔보다 영혼의 배고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책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괴테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빵은 사실 인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

괴테가 말하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빵을 먹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합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며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눈물 흘리며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어도 배가 부르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겸손했지만 배부를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사이클과 축복의 사이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 두 광주리나 담을 수 있는 음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그들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배가 부

르고 나니까 열두 광주리나 되는 엄청난 가능성을 버렸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었다면 열 두 광주리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북미대륙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 아프리카 모든 대륙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냐면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요 6:26).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추구한 것입니다. 신앙은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10~14절).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는 잊은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배부르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은 이겼지만 부요함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배부름이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이 망각을 가져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

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17절)

여러분, 이 착각이 비극을 가져옵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18~19절).

여러분,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 착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우상숭배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멸망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서 끊어야 합니까. 배부를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배고픔을 주시지만, 그 배고픔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은 기억을 가져오고, 기억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부를 지라도 겸손한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9절).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사이클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플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비결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속한 기억, 우리를 아프게 하는 기억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망각했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겸손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찬양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동요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부르던 동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라는 가사인데 요사이에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남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소원이 라고 할 만큼 간절하게 여기고,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을까. 요즘에는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다. 우리 자신이 통일에 대한 강한 동기와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까.

독일의 통일은 조그만 동독 교회에서 지속된 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시작됐다. 과연 우리 사회와 교회가 통일에 대한 동기와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야 한다.

통일의 방식과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간혹 이상한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체제의 통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한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영유아와 산모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생명은 그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 가치보다 소중하다.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돕는 것이 인도주의의 핵심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의 어린이들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다. 남한의 어린이보다 신장은 16cm, 체중은 16kg이 적다. 영유아의 영양은 정말 중요하다. 영양기는 임신 3기와 더불어 두뇌세포가 최대로 증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뇌세포의 주세포인 뉴런(neuron)은 한번 생성되면 세포분열을 하지 않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포증식 시기에 영양보충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뇌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영양공급을 최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 시기 영양 공급이 평생 좌우한다는 사실은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신부의 영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가 영유아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지원 사업을 전

면 중단시켰다.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밀가루, 전지분유, 방한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통일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뤄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회개와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정문규 장로
(통일위원회)

2017년 어린이날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다락방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송 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 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4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 5) 선물 준비 예시
 - (1) 도시락김 3개입 * 2개
 - (2) 통조림 깻잎 70g * 2개(매콤한 깻잎, 깨끗한 깻잎)
 - (3) 티오아이스티 * 1박스(40스틱)
 - (4) 밥이랑(또는 김자반) * 1개
 - (5) 타코야끼볼 (과자류) * 1봉지
 - (6) 마가렛트 * 1박스(264g)
 - (7) 크런키볼 (초코렛류) * 1통(76g)
 - (8) 마스크팩 * 2개
 - (9) 너트한쭈 (견과류) * 2봉지

- (10) 쏘라C 딸기맛 * 1개(20정)
- (11) 선교사 자녀 연령대에 맞는 문구 또는 완구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9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 ①공산권 - 중국, 베트남
 - ②이슬람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서 아프리카 - 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 ③힌두교권 - 인도
 - ④불교권 - 미얀마, 라오스
 - ⑤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

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 최희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http://www.koreapost.go.kr>나 대표 전화 (1588-1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층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6 (가락동,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방배동 오션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신한대뷰 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070-4066-0114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금학동 세종빌딩)	041-852-1040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P(인터콥)선교회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정자동) 현대빌딩	031-698-2372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UPMA	02-815-4052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문의가능,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22-0563
더멋진세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501호 (충무로2가, 라이온스빌딩)	02-2271-2246
터키어권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308호)	070-7578-2380
SEED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안산M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031-491-9650

선교사가 보낸 편지

그 사랑에 힘입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공동체 희망다락방 결연으로 남아시아(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에스라, 최에스더, 서훈, 지수 가정입니다. 서훈이가 18개월 접어들던 때 이곳에 왔는데 벌써 4살이 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훈이 동생 지수는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마음껏 기어 다니고 보이는 것마다 물고 빨며 지내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를 키우셨을 부모님의 수고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봄과 여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둘째 지수 출산 차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공동체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막 결혼하고 선교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했던 공동체 가족들이라 더욱 따스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공동체 가족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도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며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김에스라, 최에스더, 서훈, 지수 올림

부탁드립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만물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해, 바람이 온 생명을 일으키듯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세계각처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희 2000선교 팀은 올해도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격려하고 자 선교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 갔거나 혹은 현지에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다른 또래 집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하고, 힘에 부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 어떤가요? 성도님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가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같은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성도님들의 관심 어린 손길 덕분에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것입니다.

/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

14 온누리신문

게시판

2017년 4월 9일(주일) | 제1143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영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곡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화워워이프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팬택 몽골어 예배 11:30 팬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 (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

KNOCK

미니휴먼다큐 구미 가족사람 편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구미에는 외국인들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는 젊은 부부가 있다
유학생, 이주 근로자들에게 12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구미국제교회 권주은 목사와 박정림 사모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국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두 사람의 가슴뭉클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15일

CGNTV 노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KNOCK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gntv.knock

